

아시아와 태평양의 비군사기지화를 위한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사람들의 운동을 향하여

by Corazon Valdez Fabros¹

제가 에콰도르의 키토와 만타에서 2007년 3월에 개최될, “모든 외국 군사 기지들의 철폐를 위한 회의”의 국제 조직 위원회로부터 연대와 우정이 어린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번 협의회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한 일본 국내 조직 위원회의 헌신과 관대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운동들이 전세계 외국 군사 기지들의 철폐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비군사기지 네트워크 (외국 군사 기지들의 철폐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가 뭄바이에서 열린, 34개국에서 온 125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한 세계 사회 포럼에서 창설되었고, 그들 참가자들은 군사력과 군사 기지들의 주둔에 의해서 야기된 다양한 불의와 침해들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그 때 이래로 반군사기지 투쟁 중인 사람들을 위한 정보 교환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해왔습니다. 포르토 알레그레(브라질 남부 항구 도시), 유럽, 미국, 쿠바, 그리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열린 사회 포럼들이나, 가장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세계 평화 포럼에서와 같은 모임들이나 전략 회의들 속에서, 반군사기지 네트워크는 “모든 외국 군사 기지들의 철폐를 위한 국제 회의”를 통하여 통합을 이룩하고자 하였고, 그 국제회의는 2007년 3월 5일에서 1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와 만타)에서 열릴 것입니다. 이 회의가 이 시대 가장 큰 반 군사 기지 활동가들의 모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콰도르 회의의 주된 목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세계 지배의 전략과 그것이 인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속에서, 외국 군사 기지들의 역할과 다른 형태들의 군사적 주재를 분석하자.

* 세계 외국 군사 기지들에 대한 저항 투쟁들의 경험과 연대를 강조하고 나누자.

* 모든 외국 군사 기지들과 다른 형태들의 군사 주재의 철폐를 위한 세계 네트워크를 향한 목적들, 행동 계획들, 조정, 소통, 그리고 의사 결정 구조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자.

¹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Abolition of All Foreign Military Bases, March 2007 in Quito/Manta, Ecuador; Co-Convener,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Chairperson of the Pacific Concerns Resource Centre (Secretariat of the 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Movement)

*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투쟁들과, 그들 사이의 조정을 강화하는 세계 투쟁들과 행동 계획들을 세우자.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하나는 외국 군사 기지들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들과 그것들에 반대하는 풀뿌리 운동들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식적으로 네트워크와 그것의 전략들, 구조와 행동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배의 제국적 계략이 전 지구적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다 함께 그것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에콰도르 회의는 그것을 향한 하나의 발걸음으로서 고안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 군사 기지 운동의 역사가 깊은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미국이 자신의 “세계 정책 재검토”의 기본 위에 한국에서부터 일본 오키나와, 동남아를 거쳐 중앙 아시아와 서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소위 “불안전성의 원호(圓弧)”를 통제하고자 하는 관점 하에, 미국이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군사 활동들의 중추로써 이 지역을 재인식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의 다양한 형태와 징후들 그리고 우리들의 땅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점령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평택)에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어 하에 거대한 군사 기지 복합체가;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는 “미래를 위한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군사 기지들의 기능 강화가; 하와이와 괌 원주민들의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성스러운 땅을 더럽히고 미국 군사 산업 복합체 속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강탈과;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오스트리아의 증대된 지역 내 역할; 군사 방문 협정 하에 필리핀에서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빈번한 군사 합동 훈련과 자유로운 군사 입회 등이 그 징후와 고통입니다. 또한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휴가와 유흥을 즐기러 갈 때, 그들의 손에 여성들과 아이들이 강간과 성적 학대의 위협에 계속 노출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도전들 속에서, 우리는 다른 각각의 투쟁들과 참여로부터 영감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일의 긴급함과 전략적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 기지들과 다른 형태들의 군사적 개입과 그것들의 파괴적 영향들은 도처에서-한국, 오키나와 및 일본 본토, 하와이, 괌, 필리핀, 오스트리

아와 아오테로아(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원래 뉴질랜드에 붙였던 이름)/뉴질랜드, 그리고 다른 태평양 지역들-강한 민중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호적인 협력과 전략들을 위해 부각시키고 한 데 모으고자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운동들입니다.

저는 시작부터 이번 협의회가 작지만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비군사기지화를 향한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사람들의 운동을 건설하는데 중대한 발걸음 되리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07년 3월 에콰도르에서 시작될 세계 반군사기지 네트워크를 창조하는, 계속되는 업무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이 도쿄 협의회의 구체적인 목표들이 될 것입니다.

1)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의 정보, 상황, 전략들을 나눈다;

2)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과 군사 기지/주둔의 합의와, 평화와 정의를 향한 강한 풀뿌리 민중 운동 건설의 긴급한 요청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얻는다. 이 지역 안의 기지/군대의 재편성에 대한 분명한 식견을 갖는 것과, 우리가 강한 반군사기지 캠페인을 하고자 한다면 세계적 “비무장화”의 개념을 중요한 지침이나 원리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에콰도르 회의 준비를 위한 회담장을 제공하고 제안들과 전략들을 산출한다;

4) 효과적인 도구들이 될 수 있을만한 미디어 작업, 일반적 캠페인 활동, 로비, 회의를 통한 검토, 그리고 대중 활동들 등 사람들의 투쟁과 사회 활동들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 아시아와 태평양 상황에 관한 자료와 정보원의 생산을 위한 기록, 사례,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들을 모을 기회를 제공한다;

5)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지역적 상황과 일반적인 협동 간의 화합의 토대를 준비한다. 아시아와 태평양의 반군사기지 운동에 관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책자 형태나 파워포인트 자료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에 최소한 4개국 어(영어, 일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이루어질 에콰도르 회의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자료로서 재생산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나눠 가진 투쟁의 경험과 포부;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군사기지 없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세워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더욱 인도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 용기와 영감을 갖게 된 데에 대한 인식으로 더 풍부해진 채 이번 협의회를 끝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 열렬한 소망입니다.